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191호(2013-21) 발행일 : 2013. 05. 24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

소득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득계층별로 소득 이외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 3차 여성가족패널자료(2011)를 분석함

분석결과 1) 소득상위 25%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일수록 생애동안 자녀를 더 많이 출산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 하위 25% 그룹은 예외적임. 즉 소득 하위 25% 그룹은 소득 상위 25% 그룹과 마찬가지로 중위 소득층에 비해 자녀출산을 덜 할 가능성이 있음. 2) 기술통계분석 결과 소득하위 25% 그룹의 비취업모 가구가 가장 출산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주택이 자가 점유 형태일수록 생애동안 자녀를 더 출산할 가능성이 있음. 4) 소득 25~50% 구간 그룹의 경우 취업모 가구일수록 자녀출산을 덜 할 가능성이 있음

저소득층 중심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 확대가 요구됨. 중위소득층의 경우 취업모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됨. 출산기피 요인에 따른 대응 정책으로 고령임신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가 요구됨



김은정 부연구위원

1. 논의 배경 및 목적

■ 국내외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의 흐름

- 2006년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위주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 2013년도 전 계층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 정책 도입을 시작으로 보편적 지원체계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그밖에 많은 출산지원 정책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음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시행예정), 난임 부부 체외수정 지원, 산전 방문간호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등은 저소득층 중심의 경제적 지원정책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소득기준 중심의 경제적 지원정책이 주로 이루어진 배경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임

■ 정책 성과와 체감도

- 정부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수혜대상자를 넓히고 지원 폭을 늘려왔으나, 출산율 에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당사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¹⁾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 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견됨

■ 소득수준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이해

- 국내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또한 출산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 이외의 출산기피 요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출산 행태를 살펴보고 과연 저출산의 중심에 있는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소득계층에 따라서 출산 행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충분히 행해지지 않은 상황임

■ 본고는 소득 계층별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 분석대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가족패널 조사 3차 자료(2011) 중 만20세 이상 45세 이하 기혼여성 중 현재 자녀가 없거나,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1,119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함
 - 자녀연령을 이와 같이 제한한 이유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심화된 저출산 시기에 출산한 가구만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임

■ 연구방법

-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비교를 위하여 소득계층을 4분위로 나누어 비교함
 - 1/4분위는 총 가계소득 3,000만원, 2/4분위는 총 가계소득 3,800만원, 3/4분위는 총 가계소득 5,000만원
- 소득계층별 현재자녀수, 추가출산 의향 정도, 생애 총 자녀수, 자녀관련 가치관을 취업모 그룹과 비 취업모 그룹으로 나누어 ANOVA와 Chi-square Test를 실시함

1) 2009년 합계출산율 1.1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30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2009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영유아 가구의 약 8%가 보육료 · 유아교육비 감면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한 번도 수혜 받지 못한 가구는 약 58%에 해당함. 또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약 37%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7%의 가구가 한 번도 수혜대상자가 되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추가적으로 생애 총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함
 - 향후 추가출산 자녀수를 고려한 생애 총 자녀수가 0명인 경우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생애 총 자녀수가 2명인 그룹과 3명이상인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분석대상을 생애 총 자녀수가 1명인 그룹과 2명 이상인 그룹으로 나누어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함
 - 생애 총 자녀수는 현재 출산자녀수와 향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를 더하여 산출함
 - 향후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자녀수를 생애 총 출산 자녀수로 대체하였으며 향후 추가 자녀 출산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시킴

3. 소득계층별 자녀수, 추가출산의도, 가치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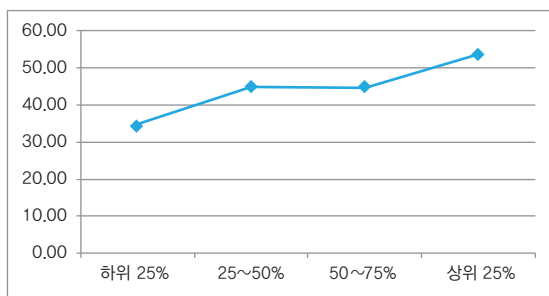
■ 소득계층별 모의 취업비율

-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모가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하위 25%그룹의 취업모 비율은 약 35.7%인 반면 소득 상위 25%그룹의 취업모 비율은 약 53.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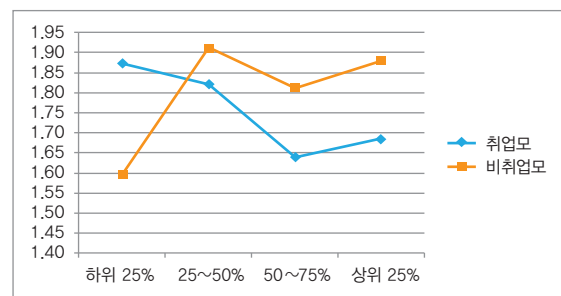
■ 현재자녀수

- 취업모 가구와 비취업모 가구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비취업모 가구의 현재자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소득하위 25% 그룹에서는 취업모 가구의 자녀수가 더 많음
 - 현재자녀수가 가장 적은 그룹은 소득 하위 25%의 비취업모 가구로 1.60명이며, 현재자녀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소득 구간 25~50% 그룹의 비취업모 가구로 1.91명임

[그림 1] 소득계층별 모의 취업비율



[그림 2] 소득계층별 현재 자녀수



■ 향후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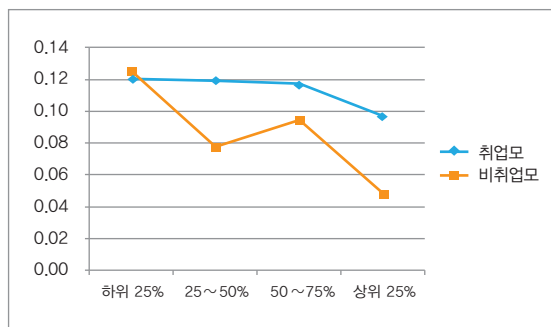
- 소득하위 25%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취업모 가구의 추가출산 계획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추가출산 계획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소득상위 25%의 비취업모 가구로 약 5%만이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그룹은 소득하위 25%의 비취업모 가구로 약 13%가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음

2) 취업모 가구와 비취업모 가구의 모의 연령을 비교한 결과 각각 38.31세, 37.06세로 취업모 가구의 연령이 더 높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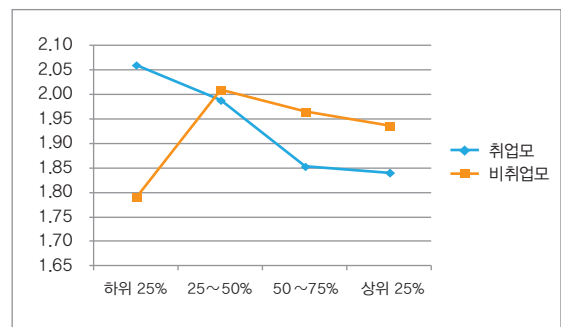
■ 생애 총 자녀수

- 전반적으로 비취업모 가구의 생애 총 자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소득하위 25% 그룹에서는 취업모 가구의 생애 총 자녀수가 더 많음
- 현재자녀수와 마찬가지로 생애 총 자녀수가 가장 적은 그룹은 소득 하위 25%의 비취업모 가구로 평균 1.79명이며, 가장 많은 그룹은 소득하위 25%의 취업모 가구로 평균 2.06명임

[그림 3] 소득계층별 추가출산의도



[그림 4] 소득계층별 생애 총 자녀수



- 소득하위 25%의 비취업모 가구는 향후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자녀수 뿐만 아니라 추가출산을 고려한 생애 총 자녀수도 가장 낮은 그룹으로, 가장 저출산이 심각한 그룹으로 나타남

[표 1] 소득계층별 자녀수 및 모의 취업비율 비교

(단위: %, 명)

| 구분 | | 소득 구간 | | | | F-value |
|---------|----------|-------|--------|--------|---------|----------|
| | | 0~25% | 25~50% | 50~75% | 75~100% | |
| 취업모 가구 | 자녀수 | 1.87 | 1.82 | 1.64 | 1.69 | 1.74 |
| | 추가출산 의도 | 0.12 | 0.12 | 0.12 | 0.10 | 0.16 |
| | 생애 총 자녀수 | 2.06 | 1.99 | 1.85 | 1.84 | 2.33* |
| 비취업모 가구 | 자녀수 | 1.60 | 1.91 | 1.81 | 1.88 | 4.89*** |
| | 추가출산 의도 | 0.13 | 0.08 | 0.09 | 0.05 | 2.07 |
| | 생애 총 자녀수 | 1.79 | 2.01 | 1.96 | 1.94 | 2.98** |
| 전체 | 모의 취업비율 | 0.35 | 0.44 | 0.44 | 0.53 | 6.908*** |

주: 추가출산 의도, 모의 취업유무는 (0, 1) binary coding으로 평균을 확률의 의미로 분석하였음.

* p<0.1, ** P<0.05, *** P<0.01

■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현재 자녀수에 따른 비교

- 추가출산계획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현재 자녀로 충분하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전체가구 중 50.0%가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자녀수는 2.17명임
 - 전체가구 중 15.6%가 ‘나이가 많아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41.14세로 조사됨
- 현재자녀수가 1명인 경우 주된 이유는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28.6%)’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26.3%)’ 인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주된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30.6%)’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28.6%)’,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24.5%)’ 순으로 조사됨

- 이를 취업모 가구와 비취업모 가구로 나누어 비교할 때, 비취업모 가구의 주된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34.6%)’이며 취업모 가구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 (39.1%)’으로 나타남

〈표 2〉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현재 자녀수에 따른 비교 (단위: %, 명)

| (χ²=202.453***) | 현재 자녀수 | | | | 전체 |
|------------------|-------------|--------------|--------------|--------------|----------------|
| | 0 | 1 | 2 | 3명 이상 | |
|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 28.6 | 26.3 | 20.6 | 17.2 | 21.2 |
|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 8.2 | 9.8 | 1.9 | 2.9 | 3.4 |
| 나이가 많아서 | 30.6 | 14.3 | 16.3 | 9.8 | 15.6 |
|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어서 | 2.0 | 6.0 | 0.6 | 0.0 | 1.3 |
|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 0.0 | 28.6 | 53.9 | 66.1 | 50.0 |
|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 24.5 | 2.3 | 3.9 | 2.9 | 4.5 |
|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 4.1 | 12.8 | 2.3 | 1.1 | 3.6 |
| 기타 | 2.0 | 0.0 | 0.6 | 0.0 | 0.5 |
| 전체 | 100 (49) | 100 (133) | 100 (646) | 100 (174) | 100 (1,002) |

주: * p<0.1, ** P<0.05, *** P<0.01

■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 소득계층에 따른 비교

○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현재자녀수를 2로 통제할 경우 소득계층별 격차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³⁾

○ 이밖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고소득층 모의 평균연령이 다소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⁴⁾

〈표 3〉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소득계층에 따른 비교 (단위: %, 명)

| (χ²=57.681***) | 소득 구간 | | | | 전체 |
|------------------|-------------|--------------|--------------|--------------|----------------|
| | 0~25% | 25~50% | 50~75% | 75~100% | |
|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 29.8 | 26.9 | 17.5 | 10.1 | 21.2 |
|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 3.4 | 2.4 | 3.4 | 4.0 | 3.4 |
| 나이가 많아서 | 14.1 | 13.8 | 14.6 | 19.8 | 15.6 |
|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어서 | 0.0 | 0.6 | 1.9 | 2.8 | 1.3 |
|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 42.9 | 47.9 | 55.2 | 54.8 | 50.0 |
|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 5.3 | 6.0 | 3.4 | 3.6 | 4.5 |
|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 3.4 | 2.4 | 4.1 | 4.0 | 3.6 |
| 기타 | 0.9 | 0.0 | 0.0 | 0.8 | 0.5 |
| 전체 | 100 (49) | 100 (133) | 100 (646) | 100 (174) | 100 (1,002) |

주: * p<0.1, ** P<0.05, *** P<0.01

3) 현재자녀수를 통제했을 때 현재자녀수가 2인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소득계층별 모의 평균연령은 소득 하위그룹부터 각각 37.7세, 37.2세, 38.4세, 39.6세임

〈표 4〉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현재자녀수를 2로 통제한 경우

(단위: %, 명)

| $(\chi^2=54.088^{***})$ | 소득 구간 | | | | 전체 |
|-------------------------|-------------|--------------|--------------|--------------|----------------|
| | 0~25% | 25~50% | 50~75% | 75~100% | |
|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 29.8 | 26.9 | 17.5 | 10.1 | 21.2 |
|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 3.4 | 2.4 | 3.4 | 4.0 | 3.4 |
| 나이가 많아서 | 14.1 | 13.8 | 14.6 | 19.8 | 15.6 |
|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어서 | 0.0 | 0.6 | 1.9 | 2.8 | 1.3 |
|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 42.9 | 47.9 | 55.2 | 54.8 | 50.0 |
|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 5.3 | 6.0 | 3.4 | 3.6 | 4.5 |
|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 3.4 | 2.4 | 4.1 | 4.0 | 3.6 |
| 기타 | 0.9 | 0.0 | 0.0 | 0.8 | 0.5 |
| 전체 | 100 (49) | 100 (133) | 100 (646) | 100 (174) | 100 (1,002) |

주: * p<0.1, ** P<0.05, *** P<0.01

〈표 5〉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현재자녀수를 2로 통제한 경우(비취업모 가구)

(단위: %, 명)

| $(\chi^2=42.445^{***})$ | 소득 구간 | | | | 전체 |
|-------------------------|--------------|-------------|--------------|-------------|--------------|
| | 0~25% | 25~50% | 50~75% | 75~100% | |
|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 36.0 | 31.9 | 14.7 | 5.1 | 23.1 |
|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 1.6 | 4.2 | 2.9 | 2.6 | 2.7 |
| 나이가 많아서 | 8.8 | 12.5 | 19.6 | 24.4 | 15.6 |
|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어서 | - | - | - | - | - |
|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 44.8 | 44.4 | 56.9 | 61.5 | 51.5 |
|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 5.6 | 4.2 | 3.9 | 3.8 | 4.5 |
|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 2.4 | 2.8 | 2.0 | 1.3 | 2.1 |
| 기타 | 0.8 | 0.0 | 0.0 | 1.3 | 0.5 |
| 전체 | 100 (125) | 100 (72) | 100 (102) | 100 (78) | 100 (377) |

주: * p<0.1, ** P<0.05, *** P<0.01

■ 자녀관련 가치관

- 자녀관련 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소득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약 70.4%가 ‘매우 그렇다’ 또는 ‘조금 그렇다’라는 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전체 대상자의 약 79.8%가 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전체 대상자의 약 15.3%만이 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4. 생애 총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소득계층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분석한 전체표본

○ 소득계층,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상위 25% 그룹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애 총 자녀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으나 소득하위 25% 그룹은 예외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할수록 생애 총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 분석

○ 각 소득계층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분석됨

- 소득 하위 25% 그룹 표본의 경우 연립·다세대에 거주할수록, 주택이 전·월세일수록 생애동안 자녀를 덜 낳을 가능성 있음. 취업유무는 유의한 영향을 못 미침
- 소득 25~50% 구간 표본의 경우 남편연령이 많을수록, 비취업모 가구일수록 자녀출산을 더 하고, 단독주택거주자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점유형태가 전세 일수록 자녀출산을 덜 할 가능성이 있음
- 소득 50~75% 구간 표본의 경우 주택이 전세일수록 총 생애자녀수가 적을 가능성이 있음
- 소득 75~100% 구간 표본의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총 생애자녀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음

〈표 6〉 생애 총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Binary logistic regression

| 변수 | 전체 | 소득구간 | | | | |
|------|--------------|-----------|---------|----------|-----------|----------|
| | | 0~25% | 25~50% | 50~75% | 75~100% | |
| 소득 | 소득구간(상위 25%) | - | - | - | - | - |
| | 하위 25% | 0.517 | - | - | - | - |
| | 25~50% | 0.944** | - | - | - | - |
| | 50~75% | 0.581* | - | - | - | - |
| | 연간 총 가계소득 | - | 0.000 | -0.001 | -0.002*** | 0.000 |
| 부의특성 | 남편 소득 | 0.001 | 0.000 | -0.003 | 0.000 | 0.004* |
| | 남편 교육수준 | 0.075 | -0.058 | 0.303 | 0.033 | 0.182 |
| | 남편 연령 | 0.018 | -0.046 | 0.328** | -0.014 | 0.118 |
| 모의특성 | 부인 교육수준 | -0.101 | 0.099 | -0.053 | -0.030 | -0.312** |
| | 부인 연령 | 0.031 | 0.057 | -0.222 | 0.048 | -0.002 |
| | 부인 비취업 | -0.237 | -0.458 | 2.201*** | 0.469 | -0.182 |
| 주거특성 | 주택유형 (단독주택) | - | - | - | - | - |
| | 아파트 | -0.925*** | -0.826 | -3.019** | -0.633 | -1.024 |
| | 연립·다세대 | -1.235*** | -1.143* | -0.557 | -0.924 | -2.384** |
| | 상업시설내 | -0.622 | 0.324 | -2.183 | 19.230 | -1.593 |
| | 주택 점유형태 (자가) | - | - | - | - | - |
| | 전세 | -0.615*** | -0.725* | -1.689** | -0.865** | -0.398 |
| | 월세 | -0.621* | -0.866* | -0.816 | -1.062 | -0.826 |
| 무상 | -0.440 | -1.038 | 0.339 | 18.313 | -0.901 | |

주: * p<0.1, ** P<0.05, *** P<0.01

5. 결론 및 시사점

■ 모의 취업상태와 소득계층별 비교

- 기술통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취업모 가구의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 층은 오히려 비취업모 가구의 출산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층 비취업모가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으로 나타남
- 다만, 전체 표본에서 소득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경우, 모의 취업유무는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소득 25~50% 구간 그룹의 경우 동일 그룹 내에서는 취업모일수록 상대적으로 덜 출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저소득층 비취업모 가구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정책설계와 해당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가 요구됨
- 또한 전반적으로 취업모 가구의 향후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취업모 가구가 계획하고 있는 출산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와 중산층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됨

■ 출산기피 요인의 소득계층별 비교

- 분석 결과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추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계획하고 있지 못한 가구도 상당수에 이룸
- 이에 따라 저소득 중심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고령임신 지원 강화가 요구됨. ‘나이가 많아서’라고 응답한 가구가 중상소득층에 더 많음에 따라 고령임신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가 요구됨
-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자녀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현재 1,2명의 자녀수가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소자녀를 선호하는 가치관 확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함

■ 소득수준과 주거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소득상위 25% 그룹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애 총 자녀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으나 소득하위 25% 그룹은 예외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할수록 생애 총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계층에서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가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주거지원 확대가 요구되며 특히 기혼의 출산대상자들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 강화 요구됨

집필자 | 김은정 (인구전략연구소 저출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문의 | 02-380-8312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